마스크 벗은 첫날 '일상회복 한 걸음 더'

코로나 신규감염 광주 886명·전남 995명…석달만에 세 자릿수

전국, 87일만에 2만명 대로 하락…위중증 환자도 꾸준히 감소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은 첫날, 광주·전남지역도 모처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세 자릿수에 머무르는 등 일상회복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다. 전국적으로도 87일만에 2만명 대로 떨어졌다.

〈관련기사 6면〉

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광주 886명, 전남 995명 등 석달 만에 각각 1000명 미만을 기록했다.

광주는 지난 2월 3일 829명, 전남은 2월 4일 965명이 확진된 이후 3개월 만에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로 감소한 것이다.

광주는 이날 요양병원 등 2곳에서 5명이 확진되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고위험시설 내 집단 감염 발생이 감소하는 분위기다.

전남은 시·군별로 순천 209명, 여수 155명, 목포 124명, 광양 97명, 영광 53명, 무안 48명, 해남 44명, 고흥 38명, 장성 36명 등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전국적으로도 87일만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만명대로 내려왔다. 이날 0시 기준 전국 신규 확진자는 2만84명으로, 누적 1729만 5733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수가 2만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월 4일(2만 7435명) 이후 87일 만이다. 또 지난 2월 1일(1만 8334명) 이후 90일 만에 가장 적은 하루 확진자 수가 나왔다.

오미크론 대확산으로 급증한 확진자 수는 지난 3월 17일 62만1175명으로 하루 최다치를 기록한 뒤 유행의 정점 구간을 지나면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일일 확진자는 지난달 21일(9만 851명)부터 12일 연속 10만명 미만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수도 전날(3만7771명)보다도 1만7687명이나 적다.

위중증 환자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날 집계된 위중증 환자 수는 461명으로 전날(493명)보다 32명 줄었다. 방역당국과 연구기관들은 위중증 환자 수가 이달 셋째 주 후에는 300명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 감소세가 뚜렷하고 의료체계도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판단해 이날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상태다. 다만 밀집도가 높고 함성 등으로 침방울이 퍼질 위험이 높은 50인 이상 집회, 행사, 공연, 스포츠경기 관람 등 경우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또 실외마스크 의무 해제가 '실외마스크의 자율적 착용'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는 2021년 4월 시행됐으나 2020년부터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실외마스크를 써왔다"며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쓰는 문화가 존중되고 서로 배려하는 쪽으로 진행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실내마스크 해제 시점과 관련해선 "실내 마스크는 장기간 유지돼야 하는 조치"라면서 "변이를 포함해 전 세계적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되면서 엔데믹(풍토병)의 조건이 서서히 충족되는 상황이 돼야 검토할 수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美 프로야구단 유니폼에 '김치'

현대차 공장 앨라배마주 연고팀, 한국문화 알리기 행사

미국 프로야구(MLB)팀이 2년째 한글로 '김치'라고 쓴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치렀다.

MLB 마이너리그 더블A 팀인 몽고메리 비스킷츠 구단은 지난달 29일 하루 '김치'라고 적힌 주황색 유니폼과 모자를 입고 경기에 임했다.

이 팀은 MLB 탬파베이 레이스 산하 마이너리그 더블A 팀으로, 앨라배마주 주도인 몽고메리시를 연고지로 한다.

이곳은 2005년 현대차 앨라배마 제조법인 진출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이 대거 진출하며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지역이다.

비스킷츠는 이날 경기에서 '김치' 투혼에도 불구하고 미시시피 브레이브스에 4대 9로 패배했다. 이 팀은 '김치 유니폼'을 입은 첫해인 2021년에는 빌록시 슈커스에 9대 8로 승리하며 '김치의 저력'을 발휘한 바 있다. 이 팀은 오는 7월 8일 다시 김치 유니폼을 입고 두 번째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두 번에 걸친 '김치 유니폼' 경기는 비영리단체 'A-KEEP'(Alabama Korea Education and Economic Partner)과 구단이 손잡고 개최한 '한국 문화유산의 밤' 행사의 일환이다.

구단 측은 김치 유니폼은 경기 종료 후 경매에 부쳐지며, 수익금은 A-KEEP에 전달된다고 밝혔다.

구단 홈페이지에는 "음식은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며 "남부에서는 비스킷츠가 주식인 것처럼, 한국에서는 김치가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라고 소개돼 있다.

2년째 '김치'가 적힌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선 미국 마이너리그 '더블A' 팀인 '몽고메리 비스킷츠'의 선수가 1루로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마이크 머피 비스킷츠 구단 매니저는 1일(현지시간) "2021년 한국 문화유산의 밤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데 이어 올해에도 계속 한국문화를 알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완도산 전복·해조류 추출물 '코로나 증식 억제 효과' 확인

완도산 전복 내장과 해조류 추출물이 코로나19 증식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는 세포 실험에서 '전복 내장과 해조류 추출물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증식 억제 효과' 연구 논문이 세계적 권위의 해양의약분야 학술지인 '마린드럭스'에 게재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서는 유사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포 침투 연구를 통해 전복 내장과 해조류 추출물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전남도와 완도군의 지원으로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탁동섭 교수팀과 공동 수행했다.

연구를 통해 실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용해 전복 내장과 해조류 추출물의 바이러스 증식 억제 효과를 확인 및 검증했다고 군은 전했다. 해양바이오연구센터 관계자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비임상시험을 통해 바이러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치료제 및 예방용 비강 스프레이 등을 개발하는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결혼 축하합니다" 광주와 전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각각 1000명 미만으로 내려가는 등 일상으로의 회복이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 1일 광주 광산구의 한 결혼식장에서 하객들이 신랑·신부를 축하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19일 본격 시행

직무 관련 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시 처벌·이익환수

공직자가 자신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회피하지 않거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정보로 사익을 취하면 과태료와 처벌, 부당이익 환수 등 제재를 가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달 19일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장관, 차관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는 임용 후 30일 안에 자신이 지난 3년간 민간 부문에서 일한 내용을 소속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위공직자는 또 임용 전 2년 안에 고문이나 자문을 제공한 법인이 자신의 현재 직무와 관련이 생기면 이 사실을 안 지 14일 안에 신고하고 직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주식 투자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처벌과 이익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가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친인척에게 제공하고 친인척이 이를 알면서도 계획 구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해 차익을 봤다면 공직자는 징계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친인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투자 경기·수도권 10억원 이상
(주)오천. 010-3605-5000

지분 부동산 삽니다
당일처리. 010-6837-4700

중앙신용
꼭! 받아야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풍수 사주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 강(6개월 과정)
일 시 : 2022. 5. 3 (화) 오후7시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
수강료 : 풍수 + 사주 20만원 (매월)
공개강좌(무료)
일 시 : 2022. 4. 26 (화) 오후7시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2246-1508

전원주택 개발부지
담양읍, 다가구, 사옥 등 다용도 부지, 임야, 매매
1 전원주택 개발부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담양. 금성. 덕성리 덕진산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신설도로 근접
• 2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적벽돌외벽 스라브즙 129㎡(39평)
• 토지 8,098㎡(2,452평) 50여년생 명품소나무 8주와 정원수 및 과수 380여주 포함
• 경관 수려한 숲속 전원주택 10여체 조성 가능
• 2층 기존 건물 후면 선산 명지 조성 가능 매 7억원
2 전원 주택용 부지와 식재된 조경수 20여년생 8종 1천5백주 포함
•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신설 4차선 I.C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느티나무, 소나무 등 20여년생 외 7종 1천5백여주 조경수 포함
• 전원주택단지, 물치장, 펜션, 가든, 커피숍 다목적 사용부지 구내포장 배수로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 9만원
3 다가구. 고급주택. 사옥 등 다용도 부지(주거 2종)
• 담양읍 양각리 강변 유럽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15분 공용주차장 3면도로접 남향 교통요지 시장인접 다가구 사옥 다용도 부지 4.220m2(1.276평) 매 ㎡ 9십만원
4 임야 내 휴양림 30여년생 편백 1만여주 식재 마을 변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 용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시 톨게이트 300m 지점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2,990평) 구내옹달샘 전원주택지 귀농·귀촌·휴양자 적합 매 ㎡ 6천원
(2)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임야 62,810㎡(19,000평) 농림지역 농로접 적송다수자생 생약재배 캠핑장. 휴양지 농가주택 가능 매 ㎡ 5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삼성홈플러스 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대영공인중개사 대표 김용주 010-3454-2389